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4 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어우러져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선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은 내려놓고, 이웃을 복되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복과 기쁨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설을 맞이하여 만나는 친지와 이웃들을 소중히 대하며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와 용납, 격려와 위로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이들과 실향민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고향 같은 이들을 만나 위로받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시 40:1,2 ..... 인도자  
 ▲ 교 독 문 ..... 32. 시편 71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목회기도 ..... 김기석 목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379.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는데 ..... 다 함께  
 ▲ 성경봉독 ..... 눅 4:21-30 ..... I. 인도자  
 ..... II. 한성건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I. 나의 자량은 오직 십자가 ..... 마중물 찬양대  
 ..... II. 주여 오소서 ..... 청파 찬양대

말씀	고향 무정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54. 주와 같이 되기를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에게 구원을 성취하시니,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복된 음성을 겸손하게 경청하며,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제가 가장 잘 안다며 나서서 오히려 주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비하게 다시 새기겠습니다. 복음의 성취를 기뻐하며, 허락하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쉽	쉽

## ■ 믿음으로 읽는 글 ■

# 해는 오래도록 너를 비출 것이며

누구나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둠의 구덩이 속에 빠져 넘어지거나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도(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자칫 방심하면 구덩이 속 어둠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갑자기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는 것 같고, 마음도 따라 쪼그라든다. 한 걸음 내딛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영영 울고만 싶은 기분 느껴 본 적 있으신지?

나는 이게 어른들만 느끼고 겪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똑같은 것을 다울이를 통해 배웠다. 워낙 유리구슬 같은 아이라 어려서부터 섬세하게 느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줄은 알았지만 두 해 전 겨울엔 몹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어떤 책에서 '자살'이란 낱말을 본 뒤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은 눈치였는데 그날 이후로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것이다.

"엄마, 내 속에 있는 먼지 같은 마음이 자꾸 말을 해."

"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나 자려고 누워 있으면 귓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인데?"

"그렇게 살면 뭐해. 차라리 죽어. 죽는 게 편해... 막 그런 소리야. 듣기 싫은데 자꾸 들려서 너무 무서워."

8살 어린애가 하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쳐서 내 심장 박동도 빨라지는 것 같았다. 대체 이게 뭐 일이지? 어떡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나는 다울이 앞에서는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고 안심을 시켰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울이가 '고흐가 왜 귀를 잘랐는지 알 것 같다고, 아마 먼지 같은 마음이 보내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였을 거라고' 했을 때는 뒤로 까무라칠 뻔했다. 정말이지 불안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를 해 주기도 하고, 책에서 좋은 글귀 같은 게 보이면 그때마다 읽어 주었다. 틈만 나면 다울이를 안아 주며 먼지 같은 마음 따위에 휘둘리지 말라고 너는 정말 소중하고 빛나는 사람이라고 거듭 말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미흡하다고 느끼던 차에 마침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눈에 띄어 허겁지겁 책을 넘기다 보니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유룩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춤춤이라는 춤을 추며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 물론 책에는 노랫말만 남아 있다.)

해는 오래도록 너를 비출 것이고  
온갖 사랑이 너를 감쌀 것이며  
너의 달콤한 빛이 너의 길을 이끌 것이다.

보는 순간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며 내 안에 숨어 있던 어둠마저도 스스로 꼬리를 보이며 달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이거다!' 싶었다. 이 노랫말을 노래로 되살려서 늘 부르고 있으면 빛의 가호가 있으리라.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기도를 되뇌이는 열망으로!

노래여, 노래에 흐르는 빛이여, 정체 모를 어둠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 크게 더 가까이 만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노래는 '동지 노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되어 공부&노래 모임 친구들과 해마다 동지 잔치(양력 12월 22일 동짓날, 새 해님이 태어남을 축하하고 우리 안에서 그 빛이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잔치를 열고 있음)을 할 때마다 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일 축하 노래로도 손색이 없고, 손님을 배움하며 축복송으로 선물하기에도 좋다. 다울이의 예민함이 감지한 어둠 덕분에 오히려 많은 이가 빛을 노래하게 된 걸 생각하면 역시 인간사 새옹지마?! ^^

아무튼 이 노래가 있어서 어둠던 길이 밝아졌으니 참말 고맙고 고맙다. 이 노래를 불렀을 까마득히 먼 옛날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빛으로 이어지게 해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래도록 이 노래를 가슴에 품고 살고 싶다.

- 정청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중에서

## 고향

- 곽재구

흐린 새벽

감나무골 오막돌집 몇 잎

치자꽃 등불 켜고 산자락에 모이고

깜장 구들 몇 장 서리 내린

송지택네 외양간

선머슴 십 년 착한 바깥양반

콩대를 다독이며 쇠죽을 쑤고

약수골 신새벽 꿈길을 출렁이며

송지덕 향아리에 물 붓는 소리

에헤라 나는 보지 못했네

에헤라 나는 듣지 못했네

손시려 송지택 구들 곁에 쭈그린 동안

선머슴 십 년 착한 바깥양반

생솔 부지깽이 아내에게 넘겨주고

쓱쓱쓱 함지박이 쌀 씻는 모습

쫄쫄쫄 양은냄비에 뜨물 받는 소리

에헤라 대학 나온 광주 양반에게서도

에헤라 유학 마친 서울 양반에게서도

나는 보지 못하였네

듣지 못하였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권미정 김경혜 김나름 김명희<sup>b</sup>김미숙 김성우 박유경 김영락 김영읍  
 김용태 박정숙 김인걸 문영혜 김인숙 김재환 김진선 김재흥 최희영 김정규  
 이종옥 김정민 이해령 김중수 이순정 김진혁 신다현 김창숙 김은종 김태한  
 김현동 오유경 김형근 김형옥 김희선 남윤경 노신후 마재국 손의나 박규석  
 박경선 박미연 박상규 안정숙 박상욱 임서영 박석희 조항미 박시내 박은애  
 이종혁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방문성 박혜경<sup>a</sup>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백원선  
 소광섭 김숙희 송형운 하미림 신능수 신영옥 심해성 안종일 정현주 안현숙  
 양정규 오미숙 오은영 우순덕 유중희 은종인 이건호<sup>b</sup>윤영주 이계선 이소순  
 이부곤 이성범 권현숙 이시경 이완구 이유진<sup>a</sup>이은주 이정우 장윤지 이증자  
 이진영<sup>b</sup>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이한나 이혁진 김수미 이호원 임당재 임선자  
 임창선 장병준 박소현 장원호 박성희 전병호 이은주 전찬익 이은자 전현선  
 정원석 김현영 정은석 최정신 정택중 조경자 조두희 오연훈 조수아 조영훈  
 주은경 최승주 조호진 최옥분 최형경 노진래 최형균 강경화 최희영 추현영  
 한선희 한인철 조운숙 허신열 홍복선 홍소형 홍춘숙

### 감사헌금

김반야 김성수 김영호 김은지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종락 박영신 김태정  
 박재영 이현정 변승호 유성애 윤선호 임선아 이범석 류정욱 이상도 이소영  
 임선희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현희 전근우 정학성 김현숙 조준범 정한샘  
 지윤미 채일석 무명<sup>2</sup>

### 녹색꿈헌금

권미숙 정효진

##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설 연휴 : 오늘 오후 집회는 설 연휴 관계로 쉽니다. 점심 식사도 쉽니다.
2. 아동부 수련회 :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배려'라는 주제로 9-10일 국제청소년 센터에서 열립니다.
3. 교회생활안내 :  
교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청파마을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주차권) 예매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세요.  
예매 시작 전에는 전주를 들으며 조용히 예매를 준비합니다.  
회중은 예매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4. 신앙실천 : 설연휴 귀성·귀경길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가족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왕하 4:11~17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곽권희	박영신	이범석

2월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동준	강세기 정경례 이소애 김현주
	2부 헌금위원	박범희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없음 (설 연휴)				
다음주식당봉사	조항미	이은자	안현숙	엄은경	강은주 김지영 신현일 박석희
오늘설거지봉사	없음			다음주설거지봉사	3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없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